#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2-5895
☎ 967-8133 사무실

# 生藥材 計劃生産과 需給調節

◉… 90年代 初盤이면 우리나라도 先進國에의 進入을機點…◉
◉…으로 하여 政治, 經濟, 文化, 社會 등 各分野가 高度의…◉
◉… 文明속에서 回轉하게 될 것이다. …◉

## 90年代를 向한 生藥分野
## 時代適應方案 모색에 부심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우리 人類에 대한 건강과 소득에 종사하여 온 한방業中 生産과 流通分野만은 아직도 在來式 方法에서 크게 변천됨이 없이 他分野에 比하여 낙후한 모습으로서 진하고 있다。

栽培하는 過程에서는 획기적 改進이 없다손치더라 生産後의 出荷과정과 流通秩序面에서는 改善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본다。더욱 全國的인 需要量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時勢가 좋다고 하면 너도나도 栽培에 집착하고 과장된 선전에 현혹되어 급기야는 과잉生産으로 時勢폭락을 가져오게하고 그뒤에 生産기피→品貴현상→時勢앙등→소비자피해→輸入供給 시세再反轉등 악순환이 연계되어 惡德商術의 매점매석 行爲를 조장하게 됨으로서 結果的으로 生産農家와 末端消費者 被害、그리고 國家경제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現實이 비일비재라고 생각할 때 어떤 行政力을 動員해서라도 일제히 全國에 걸친 生藥材 實需要量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이 기초위에서 매년 品種別 계획생산을 유도하여 저장과 공급을 調整해 나감으로서 前進하는 社會像에 적응해 나가지않으면 恒常 이分野는 낙후성을 면치 못할것이다。

事實上 需要量의 必要性은 우리 生産團體의 組織的인 生産計劃에 緊要한것이지만 現在와 같은 책임소재가 不透明한 生産過程에서는 수요량을 구지 챙겨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希望에 따라生産하여 販路가 용이할때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는 상당한 被害를 보게 되는 것이다。

대개 世界올림픽을 처음으로 주최한 나라들은 이를 계기로하여 經濟先進國으로 進入하게 되었다고한다。우리나라도 88올림픽을 치루고 나면 그문턱에 서게될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生産分野도 서둘러 需要에 의한 計劃生産을 主導해 나가야 時代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먼저 言及한바 있는 在來式方法에 依存하고 있는 주먹구구式 生産과 流通秩序를 近代化 方向으로 改善하기 위하여는 다음 몇가지 方案을 감히 提示하고저 하며 不可抗力일 때는 協會산하 各級分所長들이 이에 적극 參與하여 우리의 힘 범주내에서라도 需要와 生産 그리고 供給調節에 힘써서 名實相符、國民보건向上、農民所得增大、消費者보호、나아가서 國家경제 秩序確立등 近大化에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80年初에 이미提案한바 있었던…▲한방開發公社 창립을 첫번째로 제창하며、이 案은 한방업계 諸團體를 하나로 묶어 需要、計劃生産管理、輸出入管理、醫療技術및 공급과정에 대한 機能을 一元化體制로 하여 半國營企業 不然이면 政府의 強力한 指導力이수반된 民營化企業으로 發展시켜 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施案이라고 할수 있읍니다。▲둘째로는 消費者團體에서 每年 定例的으로 品種別 生産量을 生産者團體에 要請하는 案입니다。이 案은 兩團體를 調和시키는 上位的 中間매체가 필요하며 관계당국이 行政主導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세째는 生産團體의 힘을 길러 傘下 分事務所의 組織力 擴充과 行政資質의 向上으로 需要파악과 計劃生産 그리고 供給調節에 積極 支援協調해 나가는 길입니다。이는 現實的으로 上記두 案보다 손쉬운 일이며 部分的 目的達成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展望합니다。

ㅡ남과 같이 해서는 남이상 될수 없다(事務局제고)ㅡ

## 87會費納付 완결再促求

그동안 協會 조직面에서 많은 伸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今年만을 넘기면 行政的 운영문제는 別 하자없이 수행되리라고 生覺하고 있읍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基本會費의 分期別 納付實績이원만하였을 때 이루어지는事項임을 前提한 것입니다。未納會費 現況을 보면約 400萬원의 會費滯納이누진되고 있으므로 年末 또는 年初까지 各 支部長任들의 적극적인 協調로서會費完納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면 協會운영에 좋은結果를가져올 展望입니다。可能한 支部는 支部에서 종합징수 납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支部산하는 各分事務所별로 納付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當付드립니다。

※會費納付期限 87년12월24일까지

# 農林水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 정부미를 이용합시다

▲정부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질이 많이 좋아졌읍니다。
・영양이 우수합니다。

▲정부미 이용은
・나라살림을 돕고 가계비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악덕 양곡상의 폭리를 방지합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식생활안정과 수확기 홍수출하로인한 농가의 실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가계부담을덜기 위한 시책으로 생산자로부터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여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2중 곡가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따라서 매년 많은 양의 쌀을 수매、보관、방출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부에서 수매하여 방출하는 정부미는 소비자를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으로 정부미 이용은 가계에도 도움이 됨。즉、현재 정부미 소비자 가격은 80kg 가마당 신곡은 57、080원、상품은 53、610원인데 비해 일반미의 소비자가격은 82、000～88、000원으로써 정부미에 비해 30、000원이상 높은 수준임。따라서、한달에 80kg짜리 1가마를 소비하던 가정이 일반미 대신 정부미 상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년간 약 40만원이 절약됨。

**철저한 품질관리로 질이 많이 좋아졌읍니다。**

정부미를 일반소비자들은 무조건 나쁘다는 소문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정부미는 대부분 신품종 쌀로서 그동안 영농기술의 향상、종자개발등 꾸준한 품질개선으로 70년대에 보급되던 쌀보다는 질이 월등히 우수하여 맛이 일반미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을뿐 아니라、현재 방출되고 있는 정부미는 전부 우리 농민이 생산한 국내산으로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과거의 도입미와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

정부미는 수매시부터 수분함량이 15%이하로 건조정선된 양곡으로써 일정기간 보관해도 변질이 되지 않고 도정이나 포장과정에서도 정확한 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검사를 할뿐만아니라 알맞게 도정함으로 인하여 영양의 손실도 적음。

**영양도 일반미에 뒤지지 않읍니다。**

정부미(대부분 신품종쌀임)는 일반미에 비해 과도정이 되지않으므로 영양이 풍부함。즉、신품종쌀은 일반계 쌀보다 100g당 단백질은 1.4g、인은 19mg 더 함유하고 있으며 다른 영양소도 뒤지지 않아 신품종 쌀의 영양가가 우리의 상식보다 높음을 입증하고 있음。

가 격 비 교 (80kg, 원)

| 지 역 | 일 반 미 (87.10.20기준) | 정부미(상품) | 차 이 |
|---|---|---|---|
| 서 울 | 88,400 | 53,610 | 34,790 |
| 부산, 대구 | 86,000 | 53,610 | 32,390 |
| 인천, 광주 | 82,500 | 53,610 | 28,890 |

자료 : 농림통계담당관실 유통통계과 자료.

영 양 가 비 교 (100g)

| 품 종 | 열 량 Kcal | 지질 g | 단백질 g | 철 분 mg | 인 mg | 비타민 B1 | 비타민 B2 | 나이아신 mg |
|---|---|---|---|---|---|---|---|---|
| 신품종 | 364 | 0.8 | 8.2 | 3.3 | 119 | 0.11 | 0.07 | 1.5 |
| 일반계 | 366 | 1.0 | 6.8 | 3.7 | 100 | 0.15 | 0.08 | 1.5 |

자료 : 식품분석표, 농촌진흥청 농촌영양개선연수원 1986.12.

**정부미 이용은 나라살림을 돕는 길입니다。**

소비자가 정부미를 외면하고 일반미만 선호할 경우 소비자 쌀값만 올라가게 되면 악덕 양곡상의 폭리를 유발시키고 또、87년 9월말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쌀의 재고는 9、300천석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8、974억원이 되는데 막대한 자금을 현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신곡을 사들이는 수매비 등의 자금조달이 되지않아 외부로부터의 차입을 하게 되어 나라살림에 구김살만 가져오게 되고 또 장기보관으로 인하여 쌀의 질이 떨어져 소비자가 정부쌀을 기피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됨。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정부미 소비를 늘리는 길로써 한가정이 매월 5kg의 정부미를 일반미 대신 더 소비해 준다면 년간 400만석의 재고감소효과를 가져와 4、15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 發 (祝) 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부산직할시 지부

| | | |
|---|---|---|
| 지부장 | | 박길부 |
| 진구 | 사무소장 | 권순직 |
| 동구 | 〃 | 장희열 |
| 북구 | 〃 | 노태석 |
| 중구 | 〃 | 이차호 |
| 영도구 | 〃 | 최상용 |
| 동래구 | 〃 | 이현택 |
| 금정구 | 〃 | 김중신 |
| 남구 | 〃 | 김 승 |
| 해운대구 | 〃 | 강차순 |
| 사하구 | 〃 | 최맹호 |
| 서구 | 〃 | 최명규 |

⊙제주도 지부

| | | |
|---|---|---|
| 지부장 | | 김동균 |
| 북제주군 | 사무소장 | 강경휴 |
| 서귀포시 | 〃 | 임 철 |
| 남제주군 | 〃 | 김호현 |

1987년 11월 20일